## **백남준** 호랑이는 살아있다

단채널 비디오, 45분 27초, 컬러, 유성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11분 56초) Nam June Paik Jiger Lives

single-channel video, 45min 27sec, color, sound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11min 56sec)

(호랑이는 살아있다)는 1999년 한국의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백남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으로 2000년을 하루 앞둔 12월 31일에 임진각에서 상영되었고 한국의 KBS, 미국의 ABC, 영국의 BBC 방송국 등 전 세계 77개국에 생중계되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이 백남준 특유의 현란하고 빠른 속도로 편집되어 전 세계로 전송되었다. 영상에는 기존에 선보였던 영상 외에 북한에서 제작된 '호랑이, 사자의 대결' 장면과 호랑이 민화가 나온다. 뉴저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조지 브레히트의

〈모러사이클 선다운〉 이벤트 장면, 래리 밀러의 곡을

상면, 래리 빌러의 목을 연주하는 미국의 소프라노 가수 트레이시 레이폴드에 이어 백남준이 '금강에 살으리랏다'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백남준의 〈삼원소〉 앞에 나란히 서서 각자의 곡을 힘껏 연주한다. 한민족을 호랑이로 해석한

백남준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고통 받아온 지난 세기를 뒤로 하고 한국인들이 새로운 전망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남준의 예술과 삶을 총망라한 45분 분량의 비디오에서 주요 푸리지를 발췌·편집하여 선보인다.



Commissioned by the Korea's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New Millennium, *Tiger Lives* produced by Nam

a tiger and a lion" and folk paintings of tigers. The video also features scenes from George Brecht's Motor Vehicle Sundown performed by the New Jersey Symphony Orchestra, the American soprano singer Tracey Leipold performing Larry Miller's song, and Paik playing I'll live in Mt. Geumgang on the piano. Then Leipold and Paik,

standing side by side, perform their own song in front of the *Three Elements*. *Tiger Lives* represents Paik's wish for Koreans to make a step forward for a new vision after a long time of suffering. For this exhibition, selected footage from a 45-minute video that encapsulates Nam June Paik's art and life will be presented in an edited form.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1분 9초. 컬러. 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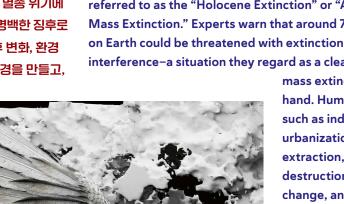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1min 9sec, color, sound

〈배니성〉은 지구의 대량 멸종 역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을 다룬다. 과거 다섯 번의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처럼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일어났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멸종은 인간 한 종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은 '홀로세 멸종' 또는 '인류세 대멸종'이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지구 생물 종의 약 75%가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의 명백한 징후로 간주한다. 산업화, 도시화, 자원 채굴,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같은 인간의 활동은 생물종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그 결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의 급속한 쇠퇴를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의 소멸은 인간의 자연 착취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배니싱〉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멸종 속도를 가속화 한다.

인간이 초래한 생명의 상실을 시각적으로 환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화면에 펼쳐지는 장면은 판라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멸종과 소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화석처럼 굳어버린 날개, 그 위를 유영하는 해골 형상은 한때 존재했으나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생명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In a history of mass extinctions on Earth, Vanishing focuses on the sixth one, which is underway right now. While the previous five mass extinctions wer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asteroid collisions and volcanic eruptions, the current one is the result of the activities of a single species: humans. Because of this, the phenomenon has been referred to as the "Holocene Extinction" or "Anthropocene Mass Extinction." Experts warn that around 75% of species on Earth could be threatened with extinction by human interference—a situation they regard as a clear sign of a sixth

mass extinction being at hand. Human activities such as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resource extraction, habitat destruction,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are hastening extinction as they make the environment less survivable for other species. But while ecosystem diversity is severely threatened, many

people either disregard or fail to perceive the rapid decline of other life forms. Their disappearance is an indicator of human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showing the inconvenient truth that we must all face. Focusing on this theme, \*Vanishing\* visually invokes the loss of life caused by human activity and raises questions about a sustainable future. The scenes that appear on screen may seem fantastical, but they contain a message of extinction and annihilation. The fossil-like wings and the skeleton drifting overhead are symbolic representations of life forms that existed at one time but have since disappeared or are in the process of disappearing.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6분. 컬러. 유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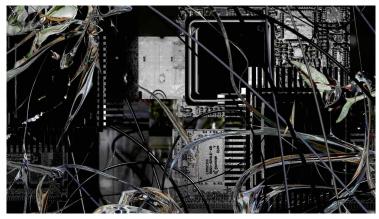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6min, color, sound

〈투명성 시각 풍경〉은 비디오 설치 작품인 〈투명성 렌더링 장치〉에서 생성된 시각적 결과물을 기반으로 구성한 대형 몰입형 비디오 작품이다. 작가는 '투명성'이라는 개념 아래, 디지털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프로젝션의 빛을 생성하는 장치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유기적 형태들을 비디오로 구현한다. 이 비디오는 단순한 이미지 재생을 넘어서, 기계의 물리적 구조를 시각적 층위로 병치시키고, 그로부터 유기적인 생명감을 가진 형상들이 출현하는 과정을 함께 제시한다.

The Transparent Visual Scenes is a large-scale immersive video work based on the visual outcomes generated through the video installation work The Transparent Rendering Apparatus. Through the concept of "transparency," Goo attempts to show the process of digital image formation in a sensual way.

To this end, he uses a device to create projected light, along with video showing the resulting organic forms.

The video goes beyond image reproduction to juxtapose the machine's physical structure into visual layers, presenting a process where forms with organic vitality emerge as a result.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7분 17초, 컬러, 유성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7min 17sec, color, sound

〈우로 보로스 엔진〉은 360도로 천천히 회전하는 파노라마 풍경 속에서,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기보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회전하는 스크린은 때로는 정지 이미지들의 연속으로 이어진 필름 스트립의 형태로, 때로는 빠르게 회전하며 초기 시네마 장치인 조이트로프(zoetrope)처럼 깜박이며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관객은 이 안에서 마치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인 우로보로스처럼, 끝없이 순환하는 고대 시간성을 경험하며, 동시에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를 학습하고 재생산하는 인공지능의 반복적 피드백 루프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Ouroboros Engine presents a panoramic landscape that slowly turns 360 degrees, creating a circulating world where time seems to slowly revolve rather than flow in a linear fashion. At times, the revolving screen resembles a filmstrip with a series of connected still images; other times, it turns quickly, resulting in a flickering movement reminiscent of a zoetrope (an early cinematic device). Within this, the viewer experiences an ancient temporality that cycles endlessly like an ouroboros-the symbolic image of a snake eating its own tail—while also experiencing the world of artificial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8분 15초, 컬러, 유성

〈솔라소닉 밴드(Insl.)〉는〈솔라소닉 밴드〉의 연작으로, 기후 위기로 아직 공연되지 않은 악기들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담고 있다. 보컬을 제외한 악기의 소리만을 포함한 연주곡의 형대를 뜻하는 'Inst.(instrumental)'는 인간없이 존재하는 악기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영상 속 악기들은 태양열, 번개, 미세먼지 등 비인간적 기후 요소에 반응하며, 인류가 살아가는 기후계를 유영한다. 작품은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공연 이전의 공연으로서 '기후 리허설'을 상상하게 한다.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8min 15sec, color, sound

Part of the Solarsonic Band series, Solarsonic Band (Inst.) uses the video medium to capture a performance by instruments that have yet to be played due to the climate crisis. The Inst. (instrumental) in the title refers to a performance that includes only instrument sounds without vocals—alluding to the possibility of instruments existing without human beings. In the video, the instruments react to non-human climate elements such as solar rays, lightning, and fine particle dust, drifting through the climate systems inhabited by human beings. Through this scenario, the work

encourages us to imagine a "climate rehearsal" as a pre-performance performance.

